



조간 제 8141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음력 6월 23일)

호남 AI·반도체 ‘전력·용수 혈맥’ 잇는다

호남권 인공지능(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된다. 반도체 생산시설 4기와 AI 데이터센터(AIDC)를 기준으로 전력 7.5GW와 하루 65만 이상의 추가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댐·하수 재이용수를 연계한 종합 공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안·영광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고 호남권 산단 전력 공급선로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주암·장흥·보성강·나주·동북댐과 광주시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 나주는 전력기업을 연구·실증·장입 기능을 집적한 에너지 특화도

서로 육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국가’ 전환과 물 기반시설 혁신을 통해 반도체·AIDC·파지컬AI 등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부는 반도체 생산시설 4기와 AIDC가 호남권에 들어설 경우 추가 전력수요가 7.5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호남권 산단 1단계 공급선로를 조기에 구축하고, 2038년까지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보강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

기후에너지부, 전력 7.5GW·용수 하루 65만 확보 등 추진
신안·영광 해상풍력 확대...주암·장흥·나주·동북댐 활용
호남권 산단 전력망 조기 확충...나주 에너지 특화도시 육성

산전력체계 구축도 속도를 낸다.

재생에너지 공급의 양대 축인 해상풍력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달 착공한 390MW 규모 신안 우이 해상풍력과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365MW 규모 영광 나월 해상풍력을 비롯한 주요 사업을 정부가 밀착 관리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전력망에 개별적으로 연결하던 방식은 공동접속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후부는 해남지역에 공동접속 방식을 적용하면 약 3조6000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송전선로 길이도 59%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호남 배전망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32개 배전선로에 128MW·640MWh 규모의 ESS 구축에 착수했다. 호남권 산단과

AIDC가 전력계통에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배터리 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도 확충한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는 기존 선로 증설과 도로·철도 공동건설을 통해 신규 선로 건설을 최소화한다. 마을 인근을 지나는 신규 선로는 지중구간을 확대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경과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용수 공급대책도 구체화됐다.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기준으로 호남권에서 하루 65만 이상의 추가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암댐과 장흥댐의 여유량을 활용하고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활용을

확대한다.

물 공급 여력이 있는 장흥댐과 가뭄에 취약한 주암댐을 연결해 전남지역 생활용수와 여수산단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워터그리드도 구축한다. 영산강 물을 농업용수로 대체 공급해 나주댐의 가용 용수를 확보하고, 농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나주댐 용수를 공업용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동북댐 증고를 통해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광주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도 늘린다. 신규 산업단지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냉각용수 등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광주 군공항이전 합의대로 추진돼야”

이 대통령 반도체 팹 상향 점검
민 시장 “큰 틀서 정리되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낙점된 광주 군 공항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기에 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사업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이 ‘안 받겠다’고 그러다더라”면서 “국가정책 시행에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을 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나는 협조 못해’ 이게 무엇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시장은 “지역적 이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선행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됐다”면서 “마지막 문제는 국가산단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산단 규모 문제가 있는데, 다시 무안군수와 만나 상의를 해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리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 1조원 지원, 국가산단 지정 등 3대 선결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며 군공항 이전 후

보지 선정위원회에 두차례 불참했다. 3대 조건 중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원 규모 지원은 정부와 특별시가 이행 방향에 공감하면서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됐지만, 무안·국가산단은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이전과 무안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시는 무안군이 요구한 100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발생 시 절반인 50만 평의 분양을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장애요인이 많다. 반대하는 쪽도 있고 방해하는 쪽도 있지만 가능하면 힘을 모아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코끼리의 여름나기 전남광주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아시아코끼리 모녀인 ‘봉이’와 ‘우리’가 찬물로 샤워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산업현장까지 멈춰 세운 ‘역대급 폭염’

체감온도 38도 넘으면 작업중지...생산 차질 현실화
용접공·일용직 구인난에 냉방비 등 비용 부담 가중

연일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이 전남광주 산업현장의 작업시간과 생산활동을 흔들고 있다.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면서 관공사는 작업을 멈추고 있다.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면서 관공사는 작업을 멈추고 있다.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면서 관공사는 작업을 멈추고 있다.

일 전남광주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이후 지난 2일과 전남에 걸쳐 광주 동부권인 동구·서구·남구·북구와 곡성군 남부 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특별시가 발주·관리하는 151개 현장에 대해 긴급조치를 제외한 작업을 중지하고, 민간 사업장에도 작업중지 준수를 권고·지도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수위를 대폭 높였다. 광주노동청은 폭염 중대경보 해제 시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가운데 작업중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작업중지 실시를 보고하지 않은 현장을 대상으로 매일 패트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폭염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산업현장은 근로자 안전과 생산 일정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작업중지와 휴식시간 확대로 실제 작업시간은 줄어들지만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 고

정비 부담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 광산구에 있는 모둘러 구조물 개발·제조업체는 최근 용접공 모집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예년에도 여름철에는 현장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구직 문의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용직 인력 확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인력을 어렵게 구하더라도 높은 공장 내부 온도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겹치면서 평소와 같은 작업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면으로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초대석



서영교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잉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할 하루가 누군가에겐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정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여수·송도 바람에 기대어 역사를 만들다



광주공항 활주로에 들어설 반도체 도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프로젝트'가 움직인다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올라'·'시'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